

“모두가 부처님이고 예수님”

조계사 비릇 무각사 등 사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밝혀
‘평화 자비 사랑 함께하는 세상’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종교 간 상생과 평화를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함께 울려 퍼졌다. 조계종은 지난 16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와 자비,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느 때보다 상생과 평화의 절실한 해, 서로를 마음의 온기로 대하면 갈등과 폭력을 벗어나 공감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너와 내가 돌아 아니듯 모두가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라며 “‘하단 죄를 덮는 사랑’으로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 서로에게 빛이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점등식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축하 인사에 이어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창밖을 보라’ ‘징글벨’ 등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노래했으며, 참가자들은 ‘평화’, ‘자비’, ‘사랑’을 외치며 종교 간 화합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6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고 ‘평화와 자비,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조계사 뿐 아니라 지역 사찰들도 성탄절을 맞아 축하 트리를 만들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종교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주지 수진스님)는 벌써 5년째 해마다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 있다. 불교 신자들이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스님)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해 온누리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니

다”는 축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사찰 입구에 걸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찰 인근에 있는 무진교회 신도들을 위해 떡국떡을 보내줄 계획이다. 무각사 관계자는 “무진교회와 서로 협력해 지역행사 등을 함께 해 온 인연으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찰에서 화합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현수막을 걸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신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떡국떡을 교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종단의 사회적 역할 막중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韓 위원장 피신’ 관련 성찰 당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및 자진출두 등 최근 종단 현안과 관련,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단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성찰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단결된 힘으로 2015년을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총무원대회에서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대독한 당부에서 “우리 종단은 최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피신과 관련해 부처님의 무연자비 정신과 한국불교 전통의 화쟁정신에 입각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모두는 우리 종단의 사회적 역할, 요구,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확인했으며, 이에 비해 우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며 “또한 이번 사안에 임하는 모습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기관과 언론을 대하는 자세, 내용,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소인자들의 안일한 모습들은 종도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다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은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 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중앙총무기관은 사찰과 스님, 신도, 나아가 사회를 위해 기도 하고 복무하는 조직”이라며 “이번 현안을 거울삼아 다시다나했던 2015년을 종무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잘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총무부장 지현스님도 조계사 주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현스님은 △경찰의 심엄한 검문 검색의 낯선 풍경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대는 조계사 경내의 모습 △신보와 보수단체의 시위 등으로 인해 “조계사는 이념대립의 장으로 변질되고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런 투구의 장소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 사태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한 대립을 모면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마무리된 것은 총무원장 스님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현스님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해온 조계사 종무원들과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경찰병력을 막아내고자 했던 총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지 한 분이 내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산길을 내려오면서 나는 참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생을 어렵게 산 사람들의 어쩌면 모처럼의 휴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무참히 짓밟았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일생을 노동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최소한의 자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왜 웃으면서 ‘즐겁게 좀 조용히 노시다 가세요.’ 이 말 한마디를 나는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암자라는, 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을 열면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가슴을 열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이게 됩니다.

한 해가 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던 겉게 그 울린 촌로의 선한 눈빛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선한 눈빛의 사람들과 내가 살아온 한 해의 시간 앞에서 나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남해 염불암

미안합니다

암자가 산 밑이라 가끔 등산객이 오갑니다. 인적 드문 곳이라 등산객들이 담소하며 지나가는 것은 때로 정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끔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고성방가를 해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오후였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있다 그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보던 책을 마저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래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큰 절에 갈 일도 있고 해서 문을 열고 나서보니 암자 바로 밑에서 사람들이 노래에 흥겨워 추고 있었습니다. 모두 시골의 촌로들이었습니다. 겉게 그을린 얼굴들. 한 생애의 고됨이 다 묻어나지만 참 선해 보였습니다. 나는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절에서 이거 뭐하는 짓들이세요.” 촌을 추던 사람들은 그 말에도 쉬이 춤과 노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할아버

서울 한복판에 ‘천년산사 공양간’ 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개관

‘깊은 산사의 공양간에서 천년을 이어온 사찰음식의 맛과 지혜가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서울 조계사 인근 안국동 안국빌딩에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을 문 열었다. 지난 1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새롭게 문 연 체험관은 한국사찰음식의 전통문화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전시와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사찰음식 복합문화공간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체험관 전시공간은 사찰음식문화의 원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사찰 공양간 재현, 전통발우 전시, 사찰의 전통장류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내외국인과 학생, 직장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과 박강성 청와대 비서관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인 등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이색적인 쿠키클래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사찰음식 전문 스님들과 함께 사찰 고추장 만들기, 차명상 발우공양 체험, 연잎밥 만들기 등 시즌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중심의 식문화인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편성된 사찰음식 특별강연,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개관식 환영사에서 “본 체험관이 사찰음식문화 전승 및 대중화는 물론 한식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나아가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성찰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차사를 통해 “기도와 염불 참선과 경전공부 뿐만 아니라, 먹는 일 또한 한국불교에서는 중요한 수행으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잘 간직된 음식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와 조리법이 잘 간직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12년 전 실명한 70대 보살 동국대에 1억원 ‘보시’

5면



www.koreatemplefood.com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자연을 닮은 행복한 사찰음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깊은 산사의 공양간에서 천년을 이어온 사찰음식의 맛과 지혜가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운영시간 오전 10시 ~ 19시까지
문의 02-733-4650

한법재판소
• 풍문여자고등학교
3호선 안국역
창덕궁
• 광화문
조계사
종각역
• 템플스테이
• 정보센터
인사동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번지, 안국빌딩 신관2층(안국역 1번 출구)